

나 너만의 Patisserie가 될거야~ 🍓🍓

너의 미소를 담은 달콤한 크림과 너의 눈처럼 촉촉한 빵으로 너만의 케이크 선물할게...  
넌랑한 내일이 느껴지니?!



참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임원경 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참부모님께 대한 영상을  
보고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네요. 아주~아주~

정말~정말 감동이 있어요. 항상 우리를 지켜  
주어서 감사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인으로에서 흥남 검목 이야기가 기억에  
남고 인상 깊어요. 저희도 그런것을  
벌받기 위해 우등생, 현녀, 전도하는 사랑이 되  
되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는 초등학  
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기도, 경배,  
헌독해서 이세상을 모두 깨, 깨닫고  
하겠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어서 축복 받아  
참부모님, 하나님 꿈을 이루기 주도록 하겠  
습니다. 참부모님,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8일 일요일

청심교회 임원경 올림 날고싶은자작나무